



양극화 사회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영화를 만나다

올리비에르 나카체 감독의 '언터처블: 1%의 우정(Untouchable)'

프랑스 코미디의 특징

짐 캐리와 로완 앳킨스(미스터 빈)으로 대표되는 영미권의 코미디영화들이 과장된 몸개그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관객들을 포복절도시키며 영화 보는 내내 아무 생각도 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프랑스의 코미디영화는 풍자와 해학을 결하여 인간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사회적이며 철학적인 경향이 강하다. 관객을 의자에서 떨어지게 할 만큼 뒤집어지는 웃음을 선사하는 배우들은 많지 않지만,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체들을 비틀고 뒤집어서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웃게 하는 데 능수능란한 배우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680년에 창립된 극단 '코미디 프랑세즈'가 아직도 견재하고 몰리에르와 같은 희극작가의 공연이 여전히 여전히 상황리에 공연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문화 풍토는 사회 풍자적 코미디물의 깊이가 범상치 않음을 은연중 알려준다.

그러나 프랑스 코미디영화는 프랑스 문화권 안에서만 효용가치를 지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사회문화 풍자를 통한 웃음은 시의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문화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웃을 수 있다. 아무런 번역을 완벽하게 한다고는 해도 자기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농담을 듣고 웃을 수 있는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한국 관객은 많지 않다. 프랑스에서 제일 잘난다는 코미디언 니콜라 칸트루가 대선을 앞둔 요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내 귀여운 장난감"이라고 말해 당시자인 시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웃겼다는 일이다. 프랑스에서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현 정치구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통할 수 없는 코미디이다.

그런데 올리비에르 나카체 감독의 새로운 프랑스 코미디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은 다르다. 살아온 배경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 프랑스가 직면한 인종차별과 빈곤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현대인의 자존감 붕괴와 같은 심리문제를 직면시킨다. 또한, 인종과 사회계층 간의 화합에 대해 소망을 하게 하는 바람에 결핍과 불만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생각과 웃음을 제공하고 있다.

협력하여 신을 이루는 힘

페러클러이던 사고로 목 밑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부자 필립(프랑수아 클루제)은 아프리카계 빈민이며 진과자인 드리스(오마르 사이)를 24시간 도우미로 맞이한다. 그저 돈을 매개로 고용주와 노동자에 지나지 않을 관계가 친밀한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드리스의 꾸미지 않은 태도 때문이다. 취직을 위해 온 것 아무런 떨지도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일을 하지도 않는다. 좋으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싫으면 싫은 내색을 감추지 않는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드리스의 태도는 형식과 규범을 중시하는 상류사회서 필립이 보아 온 모습과는 다르다.



드리스는 아내를 잃고 사지 마베로 꿈쩍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걸려 편지를 주고받는 여성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주저한다. 그런데 드리스는 마음이 원하면 해야 하는 자살범으로 필립의 고민을 풀어간다.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고 직접 진화하는가 하면, 민남의 자리도 추천한다. 드리스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자신이 돌보는 사람의 진인격적인 삶에 참여하는 오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영화는 필립이 페러클러이더를 탈 때 활강이 주는 속도감과 기침없이 부딪히는 바람을 폐 속 가득히 담아낼 때의 기쁨을 묘사하며 부자유스러운 신체가 주는 가슴 답답한 삶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려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립이 자유를 맛보는 그 자리에는 항상 드리스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영화는 2011년 프랑스 박스오피스 10주 연속 1위에 오르며 1,8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 역대 흥행순위 3위에 오를 만큼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 두 주인공의 사회적 유대감에서 오는 친밀함이 갈등과 분열이 일상화된 삶을 사는 관객

행복을 위한 내려놓음

오랫동안 정치, 경제, 제도과 문화를 통해서 유지되었던 유교의 남성 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개인의 행복과 여성존중에 대한 문화가 대두하면서 이상적인 아버지와 남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단란 잘 벌어오면 좋은 아버지로 통했고, 권위적이고 위계적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대해도 문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부간의 정서적 공유와 평등성이 중요한 시대에서 아버지와 남편은 경제적 부양 외에도 감정노동과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부부간의 정서적 공유와 평등성이 중요한 시대에서 아버지와 남편은 경제적 부양 외에도 감정노동과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많은 남성이 이런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변화에 험겨움을 느끼고 있다. 일상의 부부관계에서 돌봄 및 가사노동과 관련한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상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아이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라고 요청하면 화가 나거나 반감을 갖게 된다.

뱀뱀이하는 아내들은 남편들이 아이들을 챙기고 가사에 참여하지만, 자신들처럼 남편들이 아이들을 먹이고, 챙기고, 입히고, 교육하는 일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고 또한 가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심심함과 불만을 품곤 한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관계에서 불만을 토로하지만, 남성들은 그들이 정당한 직업임에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때도 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보면서 나는 지금 시대에 여성과 남성이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부성과 모성 그리고 부부간의 심세한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자신들도 모르게 생각과 행동에 스며들어 있는 유교주의적 성향을 내려놓는 것이 남성 자신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을까? 또한, 남성들에게 감각스럽게 요구되는 변화에 대해 여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남성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사회 성(Gender)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이라는 개념의 영어는 Sex와 Gender가 있다. Sex는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을 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의미하고, 타고난 생식기관을 통해 누가 남성이고 여성임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외는 달리 Gender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정 사회와 문화마다 남성은 어떠해야 하고(남성성, Masculinity) 여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여성성, Femininity)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에는 특정 사회마다 적합하다고 여기는 여성과 남성성에 대한 기대, 규범, 행동, 태도 등이 내포되어 있다.



태도를 보인다. 또한, 영화는 드리스가 별생각 없이 그린 초보작이 필름을 통해 고가로 팔리는 광경을 보여주며 상류사회의 허위외식을 비판한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드리스가 가난하지만 어린 동생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돕는 일이며, 필름의 집에서 몰래 가져갔던 필름 아내의 기념품을 다시 갖다 놓음으로써 도덕적 장광성을 회복한 일이다. 무엇보다 많이 배운 백인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흑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한다는 설정부터가 프랑스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흥미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생각하게 하였을 것이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히 10:24)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의 일은 아닌듯싶다. ☺

강단구 근시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 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명을 선행위주로 펼치고 있다.



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드리스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과속하다 잠하차 필름이 위급한 환자 연기를 하며 위기를 모면한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신분과 역할을 넘어서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행복조건인 하나인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유대감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드리스는 필름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낙담하는 인생으로부터 필름을 건져낸다. 반면 필름은 드리스의 범죄 경력에도 자신의 삶 깊은 곳까지 마음을 열어 받아들임으로써 드리스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도록 하는데 결정적 이바지를 한다. 성경 말씀대로 ‘협력하여 신을 이룬다(롬 8:28)’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켜보게 한다.

둘째는 흑인 드리스의 당당한 모습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높여준 일은 후시라도 관객이 가졌을 법한 인종이나 계층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드리스는 필름이 미술품을 구매하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대회화를 수만 프랑에 거래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는 한편으로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